승가원 30년, 장애인 불교복지 견인하다

중승대, 소쩍새마을 인수하며 시작
장애아동 삶의 질 향상 서비스 제공
지역 전반 자비복지 실천 법인 성장
30년 맞아 함께 이루는 희망 슬로건
맞춤형 돌봄 등 6개 전략사업 추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996년 문을 연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승가원행복마을 전경.

1996년 문을 연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현각 스님)이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온 30년은 복지가 제도이기 이전에 '사람의 일'임을 증명해 온 시간이자 불교의 자비 정신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여정이었다.

승가원은 1995년 중앙승가대가 미인가 장애인시설이었던 소쩍새마을을 인수·운영하면서 1996년 2월 6일 설립됐다. 설립 이후 미인가시설이었던 소쩍새마을을 2006년 이천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으로 새롭게 건립, 이전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1998년 중증장애아동 거주시설인 상락원을 서울 성북구에 개원했고 2019년에는 인근에 승가원행복마을을 완공, 장애아동들이 한옥으로 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총 15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승가원이 걸어온 30년은 한국 사회 장애인복지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장애가족과 지역사회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확장해 온 것이다. 2007년부터 장애인식개선 어린이 나눔교육을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장애바로알기 사업을 진행하며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에도 주력해 왔다.

체계적인 후원 시스템과 모금 및 복지사업 운영을 기반으로 대내외적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행복나눔캠페인, 사찰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KEEPGOING42 기부런과 하이킹 등의 모금사업과 온라인 모금사업, 후원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췄다.

승가원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승가원 30년-장애인의 꿈을 이루는 미래, 함께 이루리 희망 피우리'를 슬로건으로 6개 분야의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거주시설 환경개선을 넘어 자립지원주택을 운영, 마을공동체 구성 등 거주시설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는 공간을 설계, 장애인생활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농촌형 직업지원사업 모델 구축 및 도시형 직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맞춤형돌봄시스템 마련이다. 지역사회에 자립한 장애가족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활치료, 문화활동 및 후견 사업을 통해 장애가족이 자립한 이후에도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네 번째는 장애바로알기사업 확대다. 캠페인 서포터즈 구성, 공모전 확대, 전문교육 시스템 장립 등 장애인들이 자립해 나가는 지역사회가 장애친화적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장애복지·모금·후견전문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각 영역별 전문가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을 탄탄하게 받쳐줄 공감·가치공유 중심의 모금사업을 추진한다.

승가원 측은 "단계별 발전계획 속에서 사회복지사업 현장의 핵심과제들을 실천해 나가고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법인으로 성장하겠다"면서 "또 다른 30년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조계종복지재단, 불교계 연대 위한 '협의회' 출범한다

2월 3일,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전국서 '나는 절로' '청년밥심'
도륜 스님 "새로운 100년 진력"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산하 복지법인을 포함한 불교계 복지기관들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조계종 불교사회복지협의회가 공식 발족된다. 조계종 산하 사회복지법인 간 교류와 협력 강화는 물론 불교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제안, 연대사업 전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은 2월 3일 서울 한국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진행될 사업을 공유했다.

재단은 올해 '조계종 불교사회복지협의회'를 발족한다. 조계종 산하 사회복지법인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한 불교적 가치 확산과 법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재단은 불교사회복지의 가치에 기반한 종단 차원의 정책 논의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환경·복지제도 변화로 개별 법인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 공동 대응 체계 요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재단은 12월 2일 개최될 제28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발족식을 갖는 것을 목표로 상반기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목적과 주요 기능, 조직 구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불교사회복지대상'(안)도 제정한다.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국회의장 공로장 등은 유지하되 재단 대표이사 표창, 총무원장 표창 대신 불교사회복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신설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재단은 대상을 매해 불교사회복지의 상징 인물에게 수여하고 매년 평균 30명에 달하던 수상 인원을 적절히 조정해 상의 권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재단의 다양한 사업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된다. 수도권을 넘어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다.

미혼 남녀의 만남과 템플스테이를 접목해 '힙'하고 '핫'한 불교 아이콘이 된 '나는 절로'는 전국 지역에서 참가 인원을 선발해 해당 지역 사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년밥心' 역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역 사찰을 추가 섭외해 확대 운영하고 대기업 후원처 임직원 봉사자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계해 청년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도륜 스님은 "2026년은 미래를 위한 내실 다지기에 나서 다양한 복지사업들의 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마음을 모으겠다"면서 "새로운 30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비구니회·백천재단, 분황사 보건소 지원

지역민 건강검진 · 의약품 전달
1년간 각각 1200만원 씩 지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와 백천문화재단(이사장 조도성)이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보건소 의료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월 30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2층 회의실에서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보건소 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열고 향후 1년간 현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과 보건소 운영 체계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부처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의 취약계층에게 건강 검진 및 의약품을 전달하고 분황사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비구니회의 의료봉사와 의료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더욱 체계화·전문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1년간이다. 전국비구니회와 백천문화재단은 전체 사업 예산의 50%씩을 부담, 각각 12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번 사업에서 보건소 운영과 의료봉사 전반을 총괄한다. 현지 실정에 맞는 운영 모델 개발과 메뉴얼 작성,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또한 매월 초 운영 효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백천문화재단은 매월 공유되는 보건소 운영보고서를 검토하고 재단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용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가 분황사 보건소에 지원을 꾸준히 해왔지만,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자 하는 원력으로 이번 협약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하며 "두 기관의 협력으로 질 좋은 의료지원이 지속돼 부처님 자비정신이 세계에 펼쳐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2월 2일 서울 법룡사 만불전에서 '2025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회향식'을 봉행하고 원만회향을 축하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사, 입춘 기도 회향

2월 4일, 발원문 소전의식
평안 일상 · 가정 행복 발원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새봄을 맞이하는 사부대중의 발원이 조계사에 울려 퍼졌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아 2월 4일 경내 대웅전에서 '입춘 3일 기도 회향식'을 봉행하고 불보살님의 가피 속에 평안한 일상과 가정의 행복이 깃들길 기원했다.

이날 담화 스님은 '온 세상이 태평한 봄날이요, 사방 어디에도 아무런 걱정이 없기를'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특히 스님은 입춘의 '입(立)' 자를 통해 입춘은 단순히 봄이 시작됐다는 의미를 넘어 '내 안의 주인공을 바로 세우는 때'라고 설명했다.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방법으로는 △내 안의 화를 지혜의 빛으로 바꿀 것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넬 것 △부지런히 정진할 것을 제시했다.

법회 후 사부대중은 대웅전 앞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발원문을 봉송하고, 발원불을 태우는 소전의식을 진행했다. 담화 스님을 비롯한 조계사 소임자 스님들은 불자들이 정성껏 작성한 발원문을 불에 태우며 원만성취와 무탈한 한 해가 되길 서원했다.

김내영 기자

차향 속에서 '나'를 만나다

봉녕사 5기 여성출가학교 입재
'행다선 명상' 특화 프로그램도



1월 30일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 육화당.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5기 행자 9명이 다구를 앞에 두고 좌정했다. 출가자의 생활을 경험하는 일정 속에서도, 이날만큼은 '차 한 잔'을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봉녕사만의 특화 프로그램인 '행다선(行茶禪) 명상' 첫 수업이다.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은 "행다선은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만나는 수행"이라며 "이 차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가 곧 수행자의 태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자들이 배운 '불교다례'는 발우공양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립된 생활다례로, 수행과 예경,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다. 적연 스님은 "불교다례는 차가 중심이 아니라 수행이 중심"이라며 "차는 수행을 돕는 방편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행자들은 차수와 합장 등 기본 예법을 익힌 뒤 스님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차를 우리기 시작했다. 한 손으로 다관을 들고 다른 손으로 뚜껑을 누른 채 차를 따르는 순간, 행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온전히 집중했다.

첫 잔을 부처님께 올린 뒤에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차의 빛깔과 향, 온기를 천천히 음미했다. 차 공양 후에는 명상 시간이 이어졌다. 싱잉볼의 울림 속에서 행자들은 차를 마시는 행위가 곧 명상이 되고, 그 가운데 느끼는 감각 하나하나가 수행의 대상이 됨을 느꼈다.

앞서 봉녕사는 1월 29일 제5기 여성출가학교 입재식을 봉행했다. 9명의 행자들은 2월 12일까지 출가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삶의 본래 방향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지 진상 스님은 "출가자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이번 체험이 '발심 출가'라는 아름다운 선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여수령 기자 ·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박무열 불자, 군불교 발전 기금 1000만원



박무열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회장직무대행은 부산 해운정사 신행 스님과 함께 2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군불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박무열 회장직무대행은 현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국군불교총신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 회장직무대행은 "장병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군포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군포교가 더욱 활성화돼 장병들의 마음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내영 기자

종로노인복지관, 3세대 죽음준비교육 시작

2월 5일,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18년 간 이어온 죽음교육 新모델
"전 세대 교육…건강한 사회 발원"
카페 · 장금이 노인일자리 확대


종로노인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고 공간 구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선다.

종로노인종합지관은 2월 5일 관내 4층 종로마루홀에서 이용자와 지역주민,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 운영목표와 세부 전략을 발표했다.

관장 정관 스님은 2026년 키워드별 주력사업으로 △디지털과 문화 △지속가능일자리 △스마트돌봄 △ESG운영을 제시했다. 디지털과 문화 부분에서는 전 세대가 함께 지속되는 삶의 가치를 깨닫는 공간으로 'Anding 미디어아트센터' 오픈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18년 간 죽음준비교육을 이끈 정관 스님은 간담회에서 이날 3세대 교육 모델로 'Anding 미디어아트센터'는 전 세대가 3D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통해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구성됐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자원확보를 위해 공모를 신청하고 기업 펀드레이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아트 체험관 공간 및 콘텐츠 구성·기획·자문을 위해 전문가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영역별 전문기관과 MOU도 체결한다. 또 앤딩 플래너를 양성, 미디어아트 체험관에서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꾸준히 신경 쓴다. 종로노인복지관은 자체 카페 브랜드인 '플러스 카페'를 4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46명이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으며 카페 4군데에서 년 3억 18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종로노인복지관은 플러스카페의 브랜딩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 브랜드인 '종로&장금이'도 더욱 확장시켜 지속가능 노인 일자리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